



충남의소대연합회장 선거 혼탁한데 道 소방본부는 '나몰라라'

A 시연합회장, 선관위원장에까지 특정후보 사퇴종용 '발각' 세종시 2020년 예산 1조 6050억원 편성

충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선거가 나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열혼탁 양상을 띄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기관인 충남소방본부는 산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 선거 혼란만 키우고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A 시연합회장의 특정후보 사퇴 종용으로 촉발된 불협화음은 두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 간 갈등을 넘어 후보 자격 시비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도연합회장 투표권을 가진 A 시연합회장은 후보등록을 마친 지난 5일 밤 특정후보인 B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압박한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특정후보의 사퇴를 종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뜻밖의 전화에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낀 B씨는 곧바로 선관위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변호사 자문을 거쳐 형사고발 등

의 법적조치까지 고려 중이다.

B 후보는 "불쾌하기 짝이 없고,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당 협을 감추지 못했다.

선관위원장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만큼 선관위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후보의 자격 시비까지 불거져 논란은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역 대장의 임기만으로 따른 후보자격 상실 여부다.

도연합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인 만큼 올해 말로 끝나는 지역대장은 연합회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의소대 설치 조례'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낳고 있다. 일선 소방서마다 해석이 다르고, 심지어 조례를 앞장서 손질한 도소방본부 직원 간에도 해석이 달라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B 후보의 경우 지난달 28일 오후

대원들의 투표를 거쳐 연임을 확정짓고 지난 10월 30일 119센터장의 결재까지 마친 반면 C 후보의 경우 1일 오전 연임 동의서명을 받은 뒤 후보등록 마감시점인 5일 오후 5시 이후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자격요건 미달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와 관련 C 후보가 소속된 해당 소방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원들의 연임 동의서명을 받은 데다 조례상 지역대장 연임은 도연합회장 자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C씨의 도연합회장 후보 자격은 란 및 A모 시연합회장의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해 도소방본부는 선거에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뒷집만지고 있다.

후보자격 논란 또한 선거 훨씬 전에 불거졌음에도 농성행진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충남의소대연합회장 선거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성범기자

올해보다 3.4% 증가

세종시는 2020년도의 예산은 올해 분 예산보다 535억원 증가한 1조 6050억원을 편성해 오는 11일에 개최하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석 기획실장은 "일반회계는 456억원 증가한 1조 2005억원, 특별회계는 79억원 증가한 40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세입예산은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214억원 감소한 6708억원을 편성, 사회복지 및 국비 공모사업 등의 증가에 따라 국가 보조금은 올해보다 160여억원 증가한 2484억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989억원, 교부세 684억원 등이 반영된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편의 증진사업비 119억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5억 원 △지

역문화행사비 6억 원 △마을공동체 지원 7억 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3억 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3억 원 등 159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를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3846억 원 △국도·지역개발 2925억 원 △환경보호 분야 212억 원 △농림 분야 836억 원 △문화관광 분야 505억 원 △수송·교통 분야 954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429억 원을 편성했다.

중점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577억 원 △아동수당 348억 원 △영유아보육료 547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65억 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17억 원 △아르바이트 연수훈련 건립 33억 원을 편성했다.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는 △비행장 통합이전 185억 원 △소하천 정비 75억 원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58억 원 △조치원

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2억 원 △문주천 재해예방 30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9억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 1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68억 원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연비 86억 원 △스마트워터티 구축사업 49억 원 등을 편성했다.

농림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262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70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77억 원 △도시 바닷길 숲 조성 10억 원 △미생물배양실 장비 및 기자재 구입 4억 원 등으로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김종서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31억 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비 2억 원 △산단비 병상장 건립 50억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5억 원 △세종축제 10억 원 △시민체육대회 6억 원을 편성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BRT 굴절버스 구매 120억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 150억 원 △של

해 제설 응급복구 20억 원 △미호교 내진보강 7억 원을 반영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우량기업 유치 투자촉진보조금 58억 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0억 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48억 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49억 원 △자율주행실증 연구개발 지원 36억 원을 편성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나라경제가 어렵고 대부분의 지자체도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채(736억)를 발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증진, 미래 먹거리 등을 위한 투자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재정운용 방향을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는 충분히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하겠다"면서 "사업 하나하나의 타당성과 효과를 꼼꼼히 살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절하는 등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혁신도시 유치 220만 도민이지 청와대에 전달

양승조 지사 '100만인 서명부' 들고 방문

충남도가 220만 도민의 혁신도시 유치 의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양승조 지사는 7일 전영환·이상선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규희 국회의원, 나소열 혁신도시TF담당 등과 청와대를 방문,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전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날 먼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명부는 지난 3월부터 도내 곳곳 각계각층이 추진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참여 도민은 총 101만 961명이다.

양 지사는 이어 노영민 비서실장을 만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열망을 전했다.

양 지사는 "충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이를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이 아닌 전국이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10일 전국 경제투어의 일환으로 충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균형발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실어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방문 이후 양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송재호 위원장에게 100만인 서명부



충남도가 220만 도민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며 양승조 지사는 11월 중순 국회를 방문해 각 당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 행사 내빈 적절성 논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은 6일 오후 진행된 여성정책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 당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행사 당시 도의회의 여러 입장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음 뿐더러 기념식에 원장의 지인인 군 출신 인사가 대거 참여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김연수 위원(비례)은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적절한 내빈을 초대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축사의 경우 개인의 친분보다는 행사 전체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2년 이래 충남의 성평등지수는 줄곧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충남에는 농촌 지역이 많은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지수 향상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훈 위원(공주2)은 최근 개발원에서 불거진 노조와 갈등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 조직내부의 신뢰를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영 위원(예산1)은 원장의 재향군인회부회장 겸임 문제에 대해 "충남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높이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원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환기자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준비된 광역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최적지는 홍성 내포신도시!





● 왜 내포신도시인가?

- ① 충남도청 등 97개 도 단위 행정기관이 입주한 **광역행정타운**
- ② 수도권/세종/대전권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교통 인프라**
- ③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내포첨단사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정**
- ④ 도시 기반시설 완료 및 청사 신축비 지원으로 **최고의 부지**
- ⑤ 교육, 문화, 주거 여건이 완벽히 갖춰진 **최적의 입주도시**

•••••

동구청장기댄스스포츠대회



황인동 동구청장= 8일 오후 2시 인동생활체육관에 서 9회 동구청장기댄스스포츠대회를 개최.

공시심의위원회



박관근 동구청장= 8일 오전 10시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참석.

사랑의건강간식약봉투나누기행사



장종대 동구청장= 8일 오전 8시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2019 사랑의건강간식약봉투나누기 행사에 참석.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 팸투어



박정현 대덕구청장=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옥류각, 계족산 숲길 등 대덕구 관광 명소에서 펼쳐지는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 팸투어에 참가.

산업단지 악취관리 부실 사업장 적발

대전시 특사경, 악취 관련 대기배출사업장 2곳·폐수배출사업장 2곳 입건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산업단지와 그 주변의 악취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하여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주변에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악취발생의 주요 대상인 도장시설 및 금속가공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악취물질은 금속가공(주물) 및 도장시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가동하면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총탄화수소(THC)가 그대로 대

기중으로 배출되어 먼지, 악취 등을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대기 중 오존(O3)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사업장에서는 공업단지 주변 주택가에서 산업용기계를 제조하면서 산업용기계 표면에 페인트, 시너 등을 분사기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여 도색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 악취물질을 불

법적으로 배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금속가공 처리업을 하는 B사업장은 금속표면처리시설인 탈사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에 외부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또한,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장에서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 CD 업체에서는 허용보관량을 20배 이상 초과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

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의 법적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폐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협약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올바른 식생활 환경 조성"

대전 중구청장 박용갑은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관으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를 선정하고 7일 청사 구민사랑방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2017년에 문을 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

으로 안전과 영양관리 교육, 방문 위생 지도, 식단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첫 위탁기관이었던 대한영양사협회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재선정되어 이번에는 2020년부터 5년간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균형잡힌 식단체공, 급식소와 식자재의 위생적인 관리 등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市, 지역사회 사회적가치 더하기 위한 작업 시작

지자체·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의 첫 단추

시민이 발견한 문제를 공공기관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협업하여 해결하는 대전사회혁신플랫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대전사회혁신플랫폼이 공기업·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실행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누구나정상회담@대전을 통해 발굴된 의제에 대해 60여개의 의제로 분류하였고 이들에 대해 공기업·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와 매칭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10여개의 매칭이 확정되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관련된 민간영역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의제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제들은 공공기관의 고유역량과 자원을 연결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사회적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청소년의 기후변화활동 의제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페도

가 참여하는 '청소년이 기획하는 기후위기 프로젝트 워크숍'이 오는 23일 개최예정이며, 이외에도 '모두를 위한 여행, 무장애여행'과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매체공사, 위즈웍스, 팸랩대전, 마을자치랩이 참여하여 문제해결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서대전역 공간 및 지역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활동', '지역독립서점 활성화', '퇴사학교 만들기', '우리마을 농세션 만들기', '장애인 자립을 위한 문제해결' 등의 의제들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동력으로 조만간 가지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성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100세지원센터에서도 작성가능

유성구보건소소장 신현정은 보건소에서만 작성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건강100세지원센터(5개소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 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 *진잠센터, 노은센터, 원심흥센터, 전민센터, 구죽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사전에 연명의료중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유성구보건소는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방문해 상담하고 등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 건강100세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1월부터 관내 건강100세지원센터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정 유성구보건소소장은 "이번 상담실 확대 운영을 통해 보건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

관내 음식점 대상 A형간염 확산 방지 서구 다각적인 홍보 실시

대전 서구청장 장종대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제1군) 법정감염병인 A형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A형간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A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접시 사용, 주방 기구·용품 소독, 위생복, 위생모 위생 마스크 착용, 술잔 안 돌리기, 올바른 손 씻기 등 영업자·종사자·소비자 모두가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

해야 한다.

또한 구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에 대한 1:1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서구지부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A형 간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도 중요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동구, 답소2호 삼성동 북부교 공중화장실 준공식 개최

옛 우시장 스토리텔링해 명소화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7일 답소2호 삼성동 북부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 경과보고, 구청장 인사말씀, 내빈 축사, 테이프커팅 및 기념 촬영에 이어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답소는 이야기를 담다, 풍다라는 뜻으로 답소2호 삼성동 북부교 공중화장실은 답소1호 인동만세로공공 공중화장실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명소화하고자 추진됐다.

북부교 화장실은 지난 1994년 준공된 화장실로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서 위생용품 수거함과 여성안심 비상벨을 설치하는 한편 '외양간 화장실'을 주제로 삼성동 옛 우시장의 모습을 벽화로 꾸며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았다.

황인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개선사업'을 통한 clean 화장실 조성이라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각 지역별 역사, 문화를 스토리텔링해 제3, 제4의 답소 명소 화장실을 만들어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충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첨단의학연구실 개소식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연구원장 박용호)은 지난 6일 의생명융합연구센터 2층에서 융합의학연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학 연구실 개소식>을 가졌다. 첨단의학 연구실은 ▲3D 프린팅 센터(일반 3D프린팅, 바이오 3D 프린팅) ▲VR 보따게 실험실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농협 19년째 계속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농협대전지역본부(본부장 전용석, 이하 대전농협)는 7일 동구 산내농협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나눠주는 행사로 1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대전농협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이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는 농·축협 임직원,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대

전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대전농협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사랑의 김장김치를 드시고 한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담근 김장김치 1200포기(4톤)는 관내 농·축협이 선정한 취약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병배 기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서산시, 4억 6천만원 투입...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보조금 지원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4억6천만원(국비 50%, 지방비 40%)의 예산을 투입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산업

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공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중순 경 공고될 예정이며, 서산시 환경생태과(041-660-31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청양군 청남면에서 공공비축미 구매 시작

청양군(군수 김문곤)은 지난 6일 청남면을 시작으로 2019년도 공공비축미 건조비 매입에 들어갔다.

피해 벼 매입 가격은 피해날일 비율에 따라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30kg 2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공비축 매입가격 최종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포대비 수매장에 공공비축 수매인력을 지원해 고령 농가를 돕고 있다"며 "3차례에 걸친 태풍에도 농민들의 노력으로 고품질의 쌀을 수매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제27회 농업대상 선정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6일, 농업·농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온 농업인과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아산시농업대상 선정심의회를 열고 5개 부문, 5개 농업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수도작 부문 김영기·박상미 부부(도곡면), 친환경농업 부문 오진영(도고면), 과수부문에 엄철형·기은경 부부(음봉면), 축산부문 최윤호·김진영 부부(영인면)가 선정됐으며, 농업 단체부문은 아산시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가 각각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농업대상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부 공동수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 농업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한다.

아산=리량주기자

한타 전기버스 전용 타이어로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최적화된 성능 발휘하는 혁신적 디자인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대표이사 조현범, 이하 한국타이어)가 전기버스 전용 타이어인 '스마트시티 AU06(Smart City AU06)'으로 '2019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Bronze)'을 수상했다.

스마트시티 AU06은 전기차에 최적화된 기술과 전기회로를 상징하는 블록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전기버스의 운영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한국타이어 최초의 전기버스 전용 타이어다.

이번 수상은 2019 굿디자인 어워드의 운송기기 디자인 분야에서 타이어 업체

플 플랫폼 시스템으로 열 방출 효율도 강화시켰다.

또한 스마트시티 AU06에는 그루브 변형 기술(Groove Transforming Technology)이 적용됐다.

사용 초기에는 물결모양의 3D그루브 패턴으로 접지력을 강화하며, 마모가 진행될수록 그루브가 직선화되어 배수성과 연료효율을 향상시킨다.

블록 강성을 최적화하는 3D 커프(3D Kerf) 디자인을 통해 내마모 성능까지 강화했다.

굿디자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자인 인증 제도다.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정부인증 마크인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혁신적 디자인의 트럭·버스용 타이어로 2015년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2015년 및 2016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등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실적을 이어가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혁신적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Top Tier 기업으로서 미래 모토모터브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구인기업 발굴부터 구직자 취업알선까지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기업·구직자 모두에게 큰 호응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일자리 토탈 패키지 서비스'가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자리 토탈 패키지 서비스는 우수 기업 발굴, 구인정보 파악, 적합한 인재 선, 동행면접, 최종합격 후 사후관리까지 기업전담팀 전문상담사의 체계적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신속하게 이뤄진다.

일자리 지원센터 기업전담상담팀은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해 Job에이전트 수준의 고객 친화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4월부터 활발히 운영 중이다.

최근 관내대학 출신 청년구직자가 일

조폐공사 '브라운앤프렌즈 캐릭터 기념메달' 선보인다

전문잠상기술 최초 적용... 피규어 결합 금 1종, 은 2종 12월 판매



라인프렌즈(LINE FRIENDS)의 오리지널 캐릭터인 브라운앤프렌즈(Brown&Friends) 기념메달이 국내 처음 선보인다.

한국조폐공사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글로벌 캐릭터 브라운앤프렌즈의 공식 기념메달을 12월중 판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티저 영상은 이달내 공개될 예정이다.

고품위 기념주화 및 메달을 제작해온 조폐공사는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의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 캐릭터 기념메달 제작을 추진해왔다.

'브라운앤프렌즈 공식 기념메달'은 국내 최초로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달리 보이는 전면 잠상기술이 적용된다. 피규어 결합 제품으로 출시된다. 금 1종, 은 2종으로, 고유 일련번호가 새겨진 보

석터가 갖는 가치를 메달에 녹여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우리 대중문화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프렌즈 브랜드 소개>

라인프렌즈는 세계적으로 2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의 '브라운앤프렌즈' 스티커에서 시작된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다. 현재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BT21'을 비롯, '애니메이션 런닝맨', 'ROY6', '우사마루' 등 새로운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지속 창출하며 글로벌 크리에이터 기업으로도 도약하고 있다.

또 뽀빠이, 킨비, 라미, 브루튼, 라이카, 레포토 등 자사 브랜드 가치와 결합이 하는 글로벌 유명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시킨 프리미엄 캐릭터 제품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2015년 1월 독립 법인으로 분사한 라인프렌즈는 지금까지 서울, 뉴욕, LA, 도쿄, 상하이 등 세계 14개 국가 및 주요 지역에 17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와의 활발한 인터랙션을 이끌어 다수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공주시 청년사업자 프리마켓 열려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6일 신관동 카페 공금청원에서 공주대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사업자 프리마켓'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주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의 꿈을 실현한 청년사업자 17명이 참여해 직접 제작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전시 판매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는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창업 지원금 지원은 물론 경영전략과 창업실무, 재무관리 등 기본 교육과 시제품 제작 과정 등을 배우며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은 "공주시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42.6%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응답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6%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 정책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34.2%, 악화됐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도 개선됐다는 응답이 42.6%, 악화됐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송병배기자



우리/동/네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 실시

당진시, 왜목마을 일원서 선박 기름유출 대비 방제 훈련

당진시는 7일 오후 2시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왜목마을 일원에서 2019년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을 실시했다. 당진시청과 평택해양경찰서, 현대제철, 해양환경공단 등 15개 기관 및 단·업체에서 18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유조선 연료탱크 파공으로 약 20t의 유류가 유출된 해양오염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1단계 해양오염조사, 2단계 현장지휘소 및 방제기 자체 임시 보급소 설치, 3단계 해양방제 실시, 4단계 폐기물 임시저장소 설치, 5단계 해안오염 모니터링 등 모두 5단계에 걸쳐 실시했다. 특히 3단계 방제 훈련은 고·저압 세척기 등 해안방제 장비와 굴착기, 트랙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두꺼운 유층으로 고인 기름과 해안에 포착된 기름을 회수하고 가볍게 오염된 해안을 청소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을 가장한 훈련이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당진시는 이번 훈련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함께 대량 기름유출 사고 발생에 대응한 해안방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위기능력을 배양하고 관계기관 간 대응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훈련이 진행된 왜목 마을에는 2007년 서해 기름유출 사고를 극복하고 침체된 항·포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상징조형물 '새빛 왜목'이 조성돼 왜목 관광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청양소방서 소방안전훈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6일 군청사 화재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양소방서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청사 3층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를 가정해 119 화재신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한 자체 소방대의 초기 진화, 부상자 구조 및 인명대피 등으로 진행됐다. 군은 또 훈련 상황 종료 후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응급상황 대비 능력을 길렀다. 군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로 자위소방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 경각심을 높이면서 민원인과 직원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 정수와 세무행정 청렴 교육

아산시 정수과는 지난 6일, 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 부조리와 세무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법 사례들을 공유하고 청렴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다뤘다. 서장원 정수과장은 "청렴한 세무행정과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철저한 방제사업 계획 밝혀

23억투입... 벼 병해충 항공방제·돌발해충·검역병해충 방제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태안군이 지난 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농업기술센터 정래브리핑을 갖고, 올해 병해충 방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방제사업 계획을 밝혔다. 군은 올해 2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만 2,910ha 4,392농가에 2회에 걸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펼쳤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방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방제효율성을 높였으며, 사람이 직접 방제했을 때보다 10배 가량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보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의 개선책 등을 마련해 '2020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항공방제방송철저로 의도하지 않은 비산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방제기간 및 일정을 조정해 최대한 많은 농가에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은 내년 2-3월 항공방제 희망농가를 신청 접수하고 5-6월 항공방제 수탁자 선정 및 방제일을 결정할 후, 7-8월에 본격적인 항공

방제를 추진한다. 한편 군은 돌발해충 방제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군은 작물의 줄기 또는 잎에 달라붙어 즙액을 빨아먹은 후 왁스성 물질을 배출해 그을음병을 유발시켜 작물의 상품성과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외래해충인 미국선녀벌레를 비롯한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돌발해충 발생 위험지역 위주로 방제를 실시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힘썼다. 내년에도 군은 돌발해충에 대한 예방·방제를 위한 약제

를 차질없이 배포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을 계획이며, 더불어 국내 유입 시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열대거세미나방에 대한 예방 및 방제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에 철거 방제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농업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동정 이동학대 예방 세미나



오세현 아산시장 = 8일 제일호텔에서 열리는 '이동학대 예방 세미나'에 참석.

충남체전 성공개최 다짐대회



김홍장 당진시장 = 8일 오후 4시 당진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0 충남체전 성공개최 다짐대회'에 참석.

치매인심마을 현판식



가세로 태안군수 = 8일 오후 2시 이원면 포지리계기트볼장에서 열리는 '치매인심마을 현판식'에 참석.

미국 출장



김돈곤 청양군수 = 4일부터 13일까지 관광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미국 출장.

청양군 11월 다중이용시설 점검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11월 한 달 간 군내 식품접객업소 등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나선다.

점검대상은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레스토랑, 음식점, 주점, 주류판매점, 숙박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점의 경우 ▲조리장·판매장 등의 위생관리 ▲식품의 보관방법 ▲유류기판 경과제품 판매, 사용 및 보관 여부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남은 음식물 재사용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이고,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 침구 등의 청결상태 ▲환기 및 조명 상태 ▲시설, 설비기준 준수 상태 등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한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청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전국 단위 포럼에 초청된 당진형 주민자치

전국 민관협력 열린 포럼서 우수사례 공유

당진형 주민자치가 7일 충남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민관협력 열린 포럼'에 초청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전국 민관협력 열린 포럼은 국무총리비서실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남도 등이 주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 이날 전국 민관협력 열린 포럼에

서 당진시는 오후 1시 30분부터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한 사례발표 중 마을활동가 간담회 세션에서 김홍장 시장이 발표자로 나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자치도시 당진을 소개했다. 김 시장은 "고용률 전국 2위 등 지역의 발전 이면에 주민소득 다원화와 급속한 산업도시화로 인한 관주도의 행정 한계와 공동체 감동을 주는 열쇠로 UN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연계해 지역에 적합한 17개의 모델을 수립하고 시장의 최상위 이행 목표로 삼아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17개 목표 중 11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바로 당진형 주민자치의 도입 배경"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입 초기 겪었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지난 6기와 7기에 걸쳐 당진형 주민자치 성장해 온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당진형 주민자치의 선도적인 정

당진=최근수기자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웹툰으로 제작·홍보

'마애' 이달 6일부터 매주 수요일 '다음웹툰'·'카카오페이지' 연재



태안군이 국보 307호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을 웹툰으로

제작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을 소재로 한 웹툰 '마애'가 이달 6일부터 매주 수요일 '다음웹툰' 및 '카카오페이지'에 8주간 연재된다. 웹툰 '마애'는 글·그림에 영화 '강철비', '반드시 잡는다'의 원작 웹툰 작가 '제피가루'가 참여하였으며,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이 만들어진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작家的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은 백제시대의 가장 오래된 마애불로 가운데 보살상 중심으로 좌·우측에 여래상이 배치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형식의 삼존불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땅속에 묻혀있던 백제시대의 연화대좌가 드러나면서

2004년 보물에서 국보 제307호로 승격됐다. 군은 국보문화재 홍보를 위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충남문화유산진흥원과 함께 이번 웹툰 제작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은 높은 가치에 비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군이 보유한 국보문화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웹툰을 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군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웹툰 '마애' 연재를 기념해 이달 20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듯 당첨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 (<http://webtoon.event.shop>)를 참고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동정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총회



김정섭 공주시장은 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총회에 참석.

서산6쪽마늘 테니스대회



맹정호 서산시장은 8일 오전 9시 30분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서산6쪽마늘 테니스대회에 참석, 오전 10시 30분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리는 서산대산항 발전전략 토론회에 참석, 오후 2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리는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에 참석, 오후 6시 부석면에서 열리는 제1회 접어들어 음악회에 참석.

갯잎작목회 한마당 행사



문정우 금산군수는 8일 오전 10시 금성면 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갯잎작목회 한마당 행사에 참석.

공주교육전문직 학습공동체 연수



백옥희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경천작은도서관에서 열리는 공주교육전문직 학습공동체 연수에 참석.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갈등 해소

금산군, 위생매립장 증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까지 설치 가동... 오는 12월 3일 준공식

금산지역의 위생매립장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해당 지역 주민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됐다.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마을주민 10여명은 지난 5일 문정우 금산군수를 면담하고 위생매립장 입구 공해업소인 용문산업을 군에서 매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준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주민들은 또 이를 계기로 과거 위생매립장의 입구에 내걸었던 소각시설 설치 절대반대의 현수막을 내리고 "삼기좋은 마을 만들어준 금산군청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동안 금산군은 2007년부터 추부면 용지리 일대에 위생매립장을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해 왔으나 생활폐기물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적이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위생매립장 증설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까지 설

치 가동에 대해 전향적인 의사를 표함으로써 화해의 악수를 나누게 됐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5월 준공

가동 중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11월말 준공을 앞둔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 다음달 12월 3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문정우 군수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금산군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더욱 더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주연기자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아이드락 생태놀이터 조성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생태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금강신관공원 일원에 '아이드락 생태놀이터'를 조성한다.

7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7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3천만 원이 투입돼 금강신관공원 내 노후화되고 이용률이 저조했던 RC가 경기장을 생태놀이터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행복한 미래로 가는 문 '공주시 CI 마크'를 형상화한 동나무 통과하기 △공주시 마스코트인 '고미곰'을 표현한 고미곰 그물오르기 △나뭇줄 오르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놀이시설물 및 재료, 금강신관공원 이용도 등 잠재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했으며, 올해 안에 생태놀이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처럼 환경보호과장은 "공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인 금강신관공원 내 생태놀이터가 조성되면 어린이들에게는 생태적 놀이 체험 공간, 가족과 주민에게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단위 이용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서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강남지역 주요교차로에 '장수의자' 총 16개 설치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강남지역 주요교차로에 '장수의자'를 설치했다.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허리와 다리 등이 아파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수의자를 설치했다.

이를 위해 시는 800만 원을 투입해 강남지역 주요 교차로 5개 구간을 비롯해 옥룡 주공아파트 앞, 중동초등학교 앞, 금학동주민자치센터 및 공주세무서 앞 등 총 16 개를 설치했다.

평상시에는 접혀있어 보행에 큰 방해가 주지 않다가도 필요 시 펼쳐서 사용이 가능한 의자로, 시는 시민 반응에 따라 강북지역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간 도로과장은 "장수의자 설치로 교통약자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무단횡단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칫 큰 배려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 기자

노인부녀자 유혹·과대광고 서산시 '뺏다방' 주의 당부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오는 11월 말까지 노인, 부녀자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일명 '뺏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

'뺏다방'은 수개월 단위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취약계층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공연 등을 보여 주며 친밀감을 형성한 후,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강매하는 불법영업행위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홍보관·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피해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해 피해자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어르신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는 판매행위가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피해자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불법적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제22회 서산국화축제 구경꾼 북적 북적

고북면 가우리 일원서 10일까지 개최... 9일 개화절정

충남 서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22회 서산국화축제가 국화가 만개해 가을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산시(시장 맹정호)에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국화 그 가을빛 추억속으로 스물두번째 행복나들이'라는 주제로 고북면 일원에서 제22회 서산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올해에는 국화를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백조, 돌고래, 북패지 등 9종의 국화 포토존을 추가 설치했으며, 우리가족 행복나들이·우리웃(한복)경연대회, 화관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국화미로정원과 한반도 지도 산책로는 보는 즐거움에 재미까지 더해져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색소폰 연주, 전통무용 등 관광객을 위한 문화공연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에서 서산국화축제를 찾았다는 황영선(40남)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산국화축제를 찾았는데, 올해는 국화가 만개해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이 나와 기분 좋다"며 "특히 작년에 없던 국

화미로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길을 찾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에는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서산해미읍성과, 서산마애여래삼존상, 간월암, 개심사 등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다"며 "이번 주말 가족들과 서산을 방문해 진한 국화 향기를 만끽하시고,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산국화축제는 개최시기와 개최 시기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며 국화가 만개해 역대 최다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김정환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Large advertisement for Enfren tires, showing people running and a tire. Text includes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and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순천향대, 국제 심포지엄 '중개재생의학' 개최

해외우수연구소의 첨단 연구사업 소개와 주제발표 진행

순천향대 총장 서교일은 7일,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신라스테이에서 순천향의생명연구원과 단국대 공동주관으로 '제1회 충남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 국제 심포지엄 '중개재생의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승조 충남도지사,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 박완주·윤일규 국회의원, 이공휘 충남도의원 등 주요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해외우수연구소의 첨단 연구사업 소개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베트남 국립 후에 의학대학교 및 미국의 베르만광의료기 연구센터,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영국 이스트만 치의학연구소 등 총 4개국 국가 연구센터 6명의 과학자와 순천향의생명연구원과 단국대 석·박사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개재생의학'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3개 해외우수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방향, 기대효과 등이 함께 소개 됐다.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또다른 연장선상에서 충남도내 3개 연구기관의

사태와 해외연구기관의 글로벌 협력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충남도는 2017년 충남바이오산업 발전방안 수립에 이어 지난 5월에는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바이오 헬스시대, 바이오 경제시대 도래에 따른 발빠른 움직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은 순천향대학교의 탄탄한 기초연구와 4개 부속병원의 풍부한 임상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된 이래, 대사질환·줄기세포·퇴행성질환·재생의학 분야의 중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산=리광주기자



충남개발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공모전 입상 충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가 우수한 창의력으로 신축한 홍성군 노안회관이 6일 '2019 유네스코 디자인&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 Good BF 부문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산군, 병역명문의 집 문패 설치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6일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의 집으로 선정된 금산군 추부면의 박찬섭씨의 집에 방문하여 '병역명문가문패'를 달아줬다.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대전시 국제교류센터, 글로벌 해외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한남대학교(총장이덕훈)는 대전시 국제교류센터와 6일 한남대에서 '2019년도 글로벌 해외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에게 해외취업 정보 및 준비전략, 실제 사례를 통한 간접체험이 가능한 멘토링 등이 진행됐다.



아산폴리텍대, 합동소방훈련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장우영)는 지난 6일, 전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산소방서 119안전센터와 현대대우의 협조로 2019년 무각본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교직원 및 재학생의 소방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aT, 동반성장 상생협력 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19 동반성장주간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자발적 상생협력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지난 6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한타, 한반도 고유종인 '미선나무 식재 행사 개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대표이사 조현범, 이하 한국타이어)는 7일 오후 대전 구룡산 노루밭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시,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천리포수목원,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등과 함께 한반도 고유종인 '미선나무' 2000주를 식재했다.

세종시, 지역 정체성 담은 건축자산 활용방안 찾는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유형화 마무리·활용계획 수립 추진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역 고유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건축자산은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원으로, 세종시 관내에는 장육진 생가와 내관역 철도관사, 부강성당 등 93곳의 건축자산이 있다.

시는 이러한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가치발굴·활용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자산 가치발굴·활용'을 추진하고 지난 6일

내성동 SM타워에서 원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세종시 관내 건축자산 93곳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실시됐으며, 이를 다시 역사성·지역성·상징성·경제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가치평가가 실시됐다.

4개 유형은 ▲조직원음의 유통, 숙박, 공장, 시장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거리' ▲연동면의 장육진 생가와 내관역 철도관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마을' ▲부강역에서 부강성당을 잇는 '부강중심가로' ▲전의면의 마을 골목길과 조천천 수변공간 중심의 '문화

어울림마당' 등이다.

앞으로 시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숲의 터전, 건축문화 선도도시 세종'이라는 비전 아래 역사성을 살리면서 주민소통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건축자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건축자산 활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 건축 자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지역 건축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대전시티즌 마지막 홈경기 승리로 보답하겠다



대전시티즌이 2019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대전은 9월 오후 3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와의 36라운드 경기에서 시즌 최종전을 펼친다.

대전은 시즌 막판 무서운 뒷심을 발휘 중이다. 지난 주말 갈 길 급한 FC안양의 발목을 또다시 잡았다. 전반 5분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골키퍼 김진영의 연이은 선방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결국, 후반 37분 김승섭의 찬금 같은 동점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다.

대전에게 패배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 됐다. 최근 3경기에서 무패(1승 2무)를 진행 중이며, 최근 11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했다. 전반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완성된 수비 조직력과 안토니오를 앞세운 날카로운 공격이 후반기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은 다가올 광주전에서도 최근 기세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이제는 무패가 아닌 승리가 필요한 때다. 마지막 홈경기인 만큼 반드시 승리해 홈팬들에게 보답한다는 각오이다.

한편, 마지막 홈경기를 맞아 이날 경기 입장권(E/S석)은 5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김정환기자

서산소방서 구급대원 산사힐링 프로그램 운영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 5일 구급대원들에 대한 산사 힐-링 프로그램(사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жат은 출동으로 인한 가정 속에서 주지 스님의 유익하고 편안했던 생활법문 등을 경청하면서 밤샘 근무의 피로함도 잊고 몸과 마음의 안락함을 느낀 힐-링 일정이었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시, 공주향교 '시민공감 인문학 강좌'

남민, 최영성 강사의 인문학강연 및 작은 음악회 진행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오는 9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공주향교에서 '시민공감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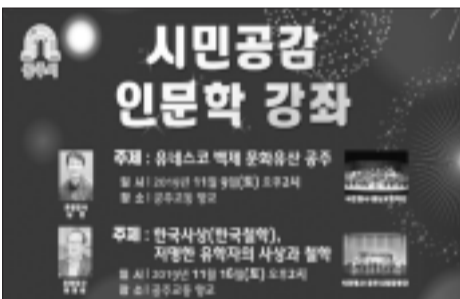
시에 따르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인문학 강좌는 인문학과 공주향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는 9일에는 여행작가 남민 강사를 초청해 '유네스코 백제 문화유산 공주'를 주제로 눈이 부시게 찬탄했던 백제문화, 세계유산도시 공주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

이다.

식전공연으로 충남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음악선을 공연도 마린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최영성 강사를 초청해 '한국사상(한국철학), 저명한 유학자의 사상과 철학'을 주제로 역사 속 인물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식전공연으로 공주시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등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강석광 문화재과장은 "이번 인문학 강좌



를 통해 과거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던 공주향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학 강좌를 통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제고 및 공감과 소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건양대 중등특수교육과, 장애학생 초청 과학문화체험 학술제

<도전하는 과학 EXPO>라는 주제로 과학문화체험 학술제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득) 중등특수교육과는 6일 논산 창의융합캠퍼스 펠랩(Fun Lab)

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30여명을 초청해 <도전하는 과학 EXPO>라는 주제로 과학문화체험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건양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미래가치 실현을 함께 이루는 과학문화 나눔 원정대' 사업(과제책임자:김성백 교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과학문화 나눔 원정대 사업은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사회적 배려대상 및 취약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 캠프, 과학문화 탐방 및 특강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지역의 과학 꿈나무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술제를 위해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예비특수교사들은 지난 8월 말부터 장애 청소년들이 생활 속 과학의 원리를 체험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체험부스를 준비했다.

이정복기자

충남교육청 산하 기관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자료 무료 이용

9월 19일 업무 협약에 따른 것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7일부터 도내 학교도서관 150곳, 공공도서관 15곳, 교

육지원청 5곳, 직속기관 5곳에서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도서관과 지난 9월 19일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학교와 기관으로부터 이용신청을 받았다.

충남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도서관에 있는 검색용 컴퓨터로 국회전자도서관의 방대한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열람, 출력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근처 공공도서관이나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민원인용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더 많은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기관들이 이용신청을 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용신청을 희망하는 교육청 산하 기관은 도교육청 교육혁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은 "충남지역 교원과 학생, 지역주민들이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국가 지식정보 활용으로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회도서관과 지속적인 공동 협력을 통해 독서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제4회 배재대학교 유학생 위한 바자회’ 개최 배재대는 6일 교육실·사회봉사센터·전국대학교노동조합 배재대지부, 배재다문화교육센터·가족지원센터·교수선교회 공동 주최로 배재대1세기관 주차장에서 ‘제4회 배재대학교 유학생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대전경철청, 대한미용사회 대전시협회와 사기범직근절 업무협약 대전경철청(청장 황은하)은 7일 대한미용사회 대전시협의회와 화보보이스피싱 등 서민 3대 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백석대·백석문화대 ‘2019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 사회봉사센터는 7일 교내 백석생활관 지하 1층에서 ‘2019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를 진행했다.



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직무대행 박봉순)는 6일 (주)이커넷·(주)이데인포와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공주시 웅진동, 저소득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공주시 웅진동(동장 천용순)은 ㈜주거복지센터(총괄 권준호) 및 공주시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충남사랑의열매, KT&G천안공장에 사회공헌 우수기업 감사패 전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KT&G천안공장을 방문, 감사패를 전달했다. KT&G 천안공장은 몇 해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해 꿈드림 문화지원,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 지역내 집수리 봉사 지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업교육 우수대학 및 개인유공자 2개 부문 교육부 장관 표창 한밭대, 창업선도대학 우수성 인정 받아

국립한밭대학교(최병욱 총장)는 지난 6일 일산 컨벤션에서 열린 ‘2019 산학협력 EXPO’에서 창업교육 우수대학 및 개인유공자 등 총 3개 부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상은 대학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대학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관계자 사기 진작 및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상식에서 한밭대학교는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부문 우수대학, 송우용 경영회계학과 교수(창업지원단 단장)는 학생창업 활성화 유공자 부문, 양창규 직원(링크사업단)은 산학협력 유공자 부문에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밭대학교는 ‘기업가적 대학’을 전라목표로 내세우며 창업교육 예산지원, 창업교과목 교양필수화와 학부-대학원 창업협력

화 지원, 창업교과목의 교양필수화와 기술스타트업 융합전공 개설, 다학제적 창업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운영, 조종고-대학 창업 동아리 연계를 통한 SSR(School Start-up Relay)사업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양창규 직원은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유공자 표창과 관련하여 교육 및 인력양성 분야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한밭대학교는 2015년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이후 5년 연속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됐으며, 창의융합 교육으로 학생들과 예비·초기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신성대, 2019 KOFEA 월드푸드 챔피언십 ‘금상’



신성대학교(총장 김병욱)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KOFEA 월드푸드 챔피언십’에서 금상과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조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올해 하반기 전국 최대 규모의 국제 요리대회로, 조리 종사자와 조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 및 일반인 등 약 2700여 명의 선수들과 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해 요리와 외식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신성대는 호텔요식조리학과 과정 오승우(과)과 제과제빵과(학과 박지양) 학생들로 구성된 총 2개 팀이 출전했다.

‘Soul Food’팀 (지도교수 오승우, 박지양의 김내경 외 4명)의 학생은 라이브경연 5인조 부문에 참가해 금상과 국회의원상을 수상했으며 ‘신술쟁이’팀 (지도교수 이창욱, 주형욱의 한승훈 외 4명)의 학생도 같은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해 참가팀 전원 수상을 달성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유한양행, 계룡산국립공원에 자연환경보전기금 전달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경욱(는)는 지난 7일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이 계룡산국립공원의 자연보전 및 지역사회를 위해 써달라며 자연환경보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와 2012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500만원씩 8년간 총 4,000만원의 자연환경보전기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조경욱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기탁 받은 지원금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의 공원관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고, 항상 지역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는 국립공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성범기자

대전도시철도 노사, 2006년부터 매년 진행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행사 가져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노사는 7일 서구 도마동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임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선정한 17세대에게 연탄 5천1백장의 연탄을 전달했으며 행사장에는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손을 보았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2006년부터 매년 노사합동으로 진행해 왔으며 공사는 지난 5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실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착한일터’ 인증패를 받았다.

김태선기자

맥스컴퍼니,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일·생활 균형 최우수기업 선정



충청권 대표주주 ‘이제우리’를 만든 맥스컴퍼니(회장 조용래)가 7일 대전시청 4층 행복실에서 진행된 ‘2019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며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관내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경영자총협회 및 대전YWCA와 함께 실시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맥스컴퍼니는 “직장생활은 즐겁고, 가정도 행복한 삶 실현”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에 참가했다. 연차휴가 축진제도 및 휴가장려, 가정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직무능력·기술훈련 장려,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노사상

생 등 직장 내에서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해 실천하고 있는 현황을 높이 평가받았다.

맥스컴퍼니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정착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앞서 시범운영 중이던 시차출퇴근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더욱 확대해 운영함으로써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워라밸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자사가 생산하는 ‘이제우리’ 소주의 보조라벨을 활용해 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복지센터,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시행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무료로 홍보하고 있다.

송병배기자



남서울대-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첨단 분야별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가 지역 정보문화산업 진흥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지속 성장을 위한 협력의 각 첨단 분야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충남문화산업진흥원(CIIA)과 7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남서울대 4차산업혁명추진단 강민식 단장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장성각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서울대 지식정보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첨단 분야별 관련 인프라의 교류 ▲4차 산업혁명 첨단 분야를 통한 미래 지향적 자원 발굴 및 성장을 위한 각종 교류 ▲가상증강 현실을 기반으로 한 제작거점센터

공동 추진 및 구축 ▲지역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융합형 클러스터 형성 등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남서울대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 2020년 유치를 예정인 충남 VR·AR 제작 거점센터 지정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5G 시대를 맞아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용 가상증강현실의 사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공동 개최했다.

이정복기자



충남사격연맹, 총기 기증식 가져

서산여중 사격부에 총기 기증

충남사격연맹(회장 박종서)이 6일 서산여자중학교 사격장에서 총기 기증식을 갖고 서산여자중학교와 천안 천남중학교 사격부에 각각 280만원 상당의 총기를 기증했다.

이날 총기 기증은 지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청남도를 대표해 출전한 서산여자중학교 기가는, 민시는 선수와 천안 천남중학교 유지는 선수, 연사중학교 박지은 선수가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5년 연속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룬 것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증된 총기는 280만원 상당의 오스트리아 스테이머회사 10m공기권총으로 김규조 서산여중 교장과 천남중학교 유소영 선수가 대표로 수여 받았다.

박종서 충남사격연맹 회장은 “선수들의 경기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총기를 기증하게 됐다”며 “선수들의 기량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의 이익! 제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동 34-26 대전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 및 예방 수칙 캠페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치사율100% 치명적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ASF에 감염된 돼지고기는 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 ✓ 국내 입국시 동물과 축산물(육류, 햄, 소시지 등)은 반드시 신고
- ✓ 축사 내외 소독 실시, 축산농가 방문 및 방생지역 방문 자제
- ✓ 발열 및 피부충출혈등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
-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한 방역조치 협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9060/4060

의심축 발견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각 신고

주 관 | 대전투데이

후 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동국대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경주시

계룡시 논산시 아산시 당진시 공주시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 금산군 부여군

태안시 청양군 서천군 예산군 충청남도집안교육지원청

